가정예배

03

다윗의 분노를 멈춘 아비가일

성경 사무엘상 25:23-35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감정이 아닌 성령에 지배받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평소에 분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성내기를 더디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은혜의 찬양 132장)

날마다 숨 쉬는 그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1

2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찬송가 484장)

2

1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2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3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4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말씀 읽기 사무엘상 25:23-35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7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8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29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34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35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본문 배경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과 어리석은 그의 남편 나발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에 부하를 보내어 부유한 나발에게 식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 나섭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상황의 위급함을 깨닫고 급히 떡과 포도주, 고기, 곡식 등

을 나귀에 실어 다윗에게 향합니다. 다윗과 마주한 그녀는 즉시 나귀에서 내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다윗의 진노를 달랩니다. 다윗에게 '바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기 남편 나발은 안중에 두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다윗은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이성을 잃었던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는 죄를 지을 뻔했던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관찰

1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멈출 수 있었나요? (29절)

답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의 삶을 해석하도록 도왔습니다.

해설 나발은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나발의 말에 흥분한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맞이합니다(23절). 아비가일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분노한 다윗을 멈추게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28절). 아비가일은 다윗의 침침한 시야를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2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32-33절)

답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복수를 멈췄습니다.

해설 관계의 어려움이 생길 때 한 사람은 무조건 옳고, 한 사람은 무조건 나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게 일이 시작되었어도 그 일을 해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은 나발로 인한 모멸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가일 덕분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32절). 다윗은 아비가일 덕분에 피를 흘려 복수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33절). 분노의 순간에 나의 분노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지혜롭게 감정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어떤 사건으로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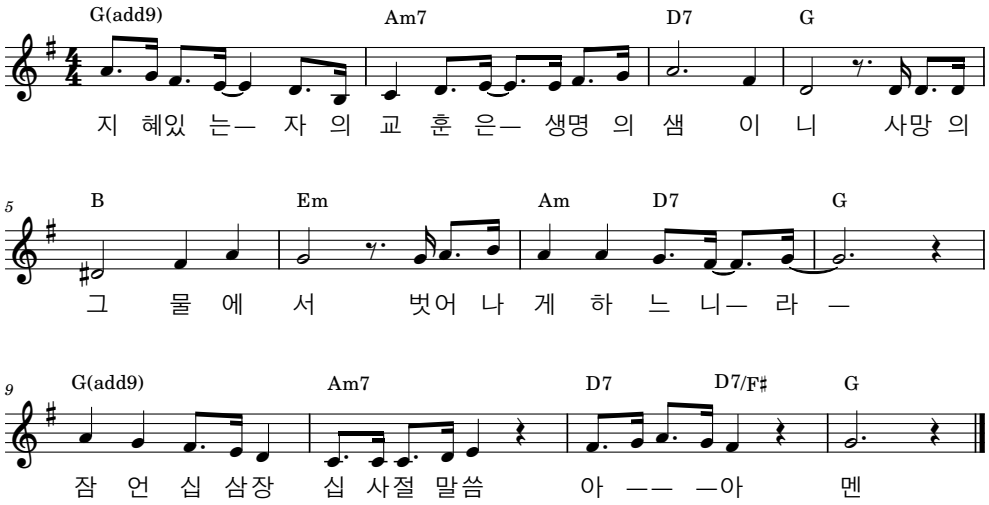
말씀 암송

5-3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잠언 13장 14절

♩ = 100

송세라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오가는 대화가 서로의 마음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서로 간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즉각 용서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